



Klara von Sinclair

싱클레어家の 탕아

“지루한데... 나랑 내기 하나 안 할래?”

이름

Klara von Sinclair
클라라 폰 싱클레어

키/몸무게

170cm / 58kg



밝고 연한 금발. 햇빛 아래 반짝일 때면 은빛에 가까운 색으로 비친다. 긴 머리카락은 항상 손대는 일 없이 늘어뜨리고 다니지만, 자주 엉키는 편이라 거슬리지 않도록 옆머리만 느슨하게 땀아 두었다. 머리카락을 관리하거나 빗질하는 데에 큰 흥미가 없어 늘 부스스한 잔머리가 떠 있다. 언젠는 귀족답게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듯하고, 또 언젠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듯하다.

가벼운 복장을 선호해, 등교 시간을 제외하면 자켓은 거의 착용하지 않고 벗어 둔다. 규칙을 어기지는 않아도 굳이 뽀뽀하게 지킬 필요는 없다는 사고방식이 복장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활동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선호하지 않아 악세서리 착용은 피하거나 최소한으로만 한다. 아티팩트 역시 착용할 때의 감각이 거슬린다며 비선호.

선명한 푸른색 위로 보랏빛이 열게 감도는 눈동자. 맑고 투명하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권태와 지루함이 깔려 있다. 다만 이러한 깊이는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웃음으로, 때로는 귀족다운 예의 바른 미소로 가려지기에 들여다볼 기회가 많지 않다고. 내려갈 일이 없는 웃음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가면인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

성격

#권태 #철부지 #호기심 #고집 있는

쾌락주의 다양한 일에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빠르게 흥미를 잃는 탓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일이 드물다. 지루한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호기심 충족과 즉각적인 만족감을 우선시한다. 법과 사회가 허용하는 선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미 대부분 해 봤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때문에 평범한 자극에는 좀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냥 지루한 표정을 짓고는 한다.

가벼운 매사에 진중한 태도보다는 가볍고 흥미본위의 모습으로 임한다. 철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본인은 개의치 않고, 되려 '재미있게 사는 것보다는 나처럼 사는 게 훨 낫다'하는 주장을 펼친다. 특유의 호기심 덕에 새로운 규칙이나 금지된 것을 발견하면 한 번쯤 손을 대 보고 싶어 한다고. 당연히 사고를 치는 일도 잦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니 안심하자.

고집 있는 한 번 흥미를 느끼거나 결정한 일은 쉽게 반복하지 않는다. 설득이야 해 볼 수 있겠지만, 어지간히 매혹적인 선택지가 아니고서야 흔들리지 않으며 강요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가벼워 보이지만 자신의 생각은 끝까지 관찰해 내는 타입.** 자신의 선택을 쉽게 꺾지 않고, 타인에게 제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호불호

Like	Hate
내기와 도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택 어렵고 복잡한 마법 이론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전반 규칙의 빈틈을 찾는 일	지루한 것, 재미없는 교양 수업 자신이 믿는 교리에 어긋나는 주장 (특히나 플레로마 교리) 노력 없이 쉽게 얻어낸 결과 “원래 그런 거야”라는 말

고유능력

욕망 읽기

인간의 욕구를 0~10으로 나눠, 그중에서 6 이상의 강한 욕망을 읽어 낼 수 있다. 자신의 고유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용하면 정보가 과하게 들어와 극도의 피로를 느낀다고 한다. 능력을 사용할 때의 감각이 자신을 둔하게 만들어 썩 좋지 않다고. 입으로 싫어한다고 말해도 능력 자체는 유용하게 잘 써먹는 것 같기도 하다.

특징

| *Klara von Sinclair*

| 마법학과 3학년 2분반 소속. 8월 11일생.

- | 태어난 날에 맞춰 세례명을 정했으며,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성인의 외관과 비슷한 영향도 크다는 이야기가 있다.
- | 싱클레어 家は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슈투트가르트 주도에 거처를 둔, **빛 마법에 능통하다고 알려진 카톨릭 귀족 가문**이다. 클라라의 위로 가정자가 세 명 있으나 사이는 썩 좋지 못하다고.
- | 클라라는 규율을 중시하는 집안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고가 자유롭고, 언행 또한 진중하지 못해 '**싱클레어 가의 탕아**'라는 호칭으로 불려 왔다. 사고를 치면 반은 체념, 반은 또 시작이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 온다. 본인은 그 호칭을 꺼리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는 눈치. *탕아라고 불리기엔 내가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 Ect

- | 특기는 **빛의 굴절과 지열로 인해 발생하는 아지랑이를 변형해서 만들어 내는 환영 마법**. 실제 없는 왜곡된 빛과 흔들리는 형상으로 상대의 시야와 인식을 교란하는 것에 능하다.
- | 흥미본위.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다. 계획을 세워 따르기보다는 즉흥적인 전개를 선호한다.
- | 완드를 자주 놓고 다닌다. 다른 학생의 완드를 빌리거나 학교에서 지급하는 기본 완드를 대신 사용하는 모습은 거의 일상이라고. **대련 시 선호하는 주 무기는 스태프**.
- | 내기를 좋아한다. 학교 내에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몰래 학생들을 모아 판을 꾸리다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판돈을 걸지 않는다는 점일까.
- | 어렵고 복잡한 마법, 새로운 마법식의 연구를 좋아한다. 특히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마법에 강한 흥미**를 보이며, 실습 마법의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한다. 반면 교양 과목과 암기 위주 수업에선 처참한 성적을 기록해 성적표가 항상 극단적이다. 좋아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성격을 반영한 성적.
- | 기본적인 검술 교육은 받았으나 그 이상으로 깊게 배우지 않았다. *"정직한 검술은 내 취향이 아니야."* 상대를 약 올리고 도발해서 중심으로 무너뜨린 뒤 틈을 노리는 전술을 선호하며, 정면에서 힘을 맞대기보단 공격을 흘려내고 피하는 방어형 전투를 한다. 때문에 **정공법으로 밀어붙이는 무거운 공격에 약하다**.

소지품

주사위 한 쌍이 든 가죽 파우치	여러 기도문과 자잘한 메모가 적힌 노트	약한 마법이 걸린 트럼프 카드 덱
----------------------	--------------------------	-----------------------

선관

죽을 때까지 대련하자, 지는 쪽은 개가 되는 걸로.

에밀 아델하이트	친관
첫 만남은 학교 밖이었다. 그때 만났던 날라리가 같은 교육원생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의외로 말이 꽤 잘 통하고, 무엇보다 대련을 좋아한다! 옆에서 좀만 귀찮게 굴면 클라라가 좋아하는 내기—라고 적고 도박이라고 읽는다.—도 함께 해 주니 심심할 틈이 없다. 현재는 생각보다 죽이 잘 맞는 탕자 듀오가 되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지~

미카엘라 엘리스	일방적 혐관
사교계에서 만나 친해진 몇 안 되는 친구. 어릴 적부터 늘 같은 생각을 공유하며 가깝게 지내 왔다,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고, 우연히 만나게 될 때에도 더 이상 예전처럼 따스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말이 안 통해

아리엘 크로이츠	혐관
어릴 적, 아직 자신의 마력 제공자(부모)를 따라다니던 시절에 마주친 인물. 같은 종교와 같은 교리를 좋아하니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대화를 해 봐도 빙빙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다. 아리엘은 사랑을 외치고, 자신은 고난을 외친다.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틀어질 수밖에. 좋은 이해자가 되지 못해 아쉬운 눈치다.	

